

학생 저자 출판회, 6회 맞아

뜨거운 관심속 책출판 축제 성료

책이 어렵다는 이미지 탈피 계기 돼



광주시교육청·광주시교육연구정보원이 주관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아시아문화원이 후원한 '2019 학생 저자 책출판 축제- 책이 된 우리들의 이야기, 여섯 번째'가 지난 1일 학생, 학부모, 교육가족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막을 내렸다.

11월 27일부터 5일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 주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광주지역 17개 초·중·고 학

생 독서 책쓰기 동아리와 3개의 교사 독서교육연구회가 참여해 직접 저술한 도서 64종과 그동안의 독서 교육 성과물들을 소개했다.

행사장에서는 할머니 죽음에 대한 슬픔을 기억 너머에서 소환하여 극복하는 과정을 그린 소설 '새로고침', 가족들의 인터뷰와 편지글, 사진 등을 모아 보며 사랑하지만 잘 몰랐던 가족 이야기를 담은 'present, for you', 말도 많고 탈

도 많은 6학년 열세 살 꼬꼬마들의 최신 경향을 읽을 수 있는 '트렌드 꼬꼬마 2019, 내가 가고 싶은 학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떠올려보며 펼쳐낸 협동 그림책 '있으려나 학교' 등의 학생 저자들이 연필로 꼭꼭 눌러쓰고, 다채롭게 그려낸 작품들이 행사장을 찾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 냈다.

올해 학생 저자로 참여해 '소담정원'을 출간한 광일고등학교 김인우 학생은 "책을 만드는 과정이 그리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이 활동을 통해 이해했다. 정원을 보고 작은 책으로 담아내는 것은 나만의 작은 꿈이었다."라며 감격스러움을 표했다. 또한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 이은애 교사는 "책이 나왔을 때 아이들의 눈빛을 본 교사라면 책쓰기 과정이 아무리 힘든 여정이더라도 기꺼이 함께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며 "함께 여기까지 와 준 우리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인호 기자

원어민 교사들, 광주의 맛과 멋에 흠뻑 물들다

광주창의융합교육원, 원어민교사 워크숍 추진



광주창의융합교육원은 지난달 29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관내 초·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40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참가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수업 사례들을 공유했고, 더불어 한국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체험활동도 진행했다.

이 워크숍에서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는 그들이 경험한 영어 수업 시간 내 다양한 체험들과 자신들의 에피소드들을 공유하는 수업나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시작했다. 또한 광주의 자연과 하나되어 체험할 수 있는 무등산 생태 탐방원을 방문하여 해설사의 설명에 따라 밭줄놀이를 하고 낙엽이 쌓인 생태원 탐방길을 트레킹을 하기도 했다.

또한 무등산 수박마을에서 마

을 주민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고, 찹쌀을 직접 빻아 인절미를 만들어 보기도 하였다. 김치를 담그고 담근 김치를 주민들이 마련해 준 따뜻한 밥과 함께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치를 담그는 동안 경로당 옆에서는 한국 전통놀이(제기차기, 윷놀이, 빚짚으로 새끼 꼬기 등을 체험했다.

이 워크숍에 참가한 원어민 교사 Annatoria는 "한국의 놀이나 김치 만드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자리가 있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고, 오랜만에 만난 동료교사들과 함께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광주창의융합교육원 강지에 교육연구사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역량강화 워크숍은 소통을 통해 원어민 교사 간의 협력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한국을 좀 더 이해하고 좋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 도입 '에듀택시' 전국 확산 전망

전국 최초 시범운영 거쳐 올 2학기 21개 시군 확대

교육부 주최 국가시책사업 협의회에 운영사례 소개



전남도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에듀택시'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제주에서 열리는 교육부 주최 '농어촌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지원 국가시책사업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에 '에듀택시' 운영현황을 소개한다.

교육부는 에듀택시 제도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해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 도입으로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는 물론 농어촌 교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사실이 전국으로 알려졌다.

여수=김도현 기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책임 지겠습니다"

여수 교육청

여수교육청은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업무 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나이스 업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방과후학교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운영일

지, 참여학생 출결 사항, 강사 관리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 NEIS를 활용한 데이터 전산화 방안을 알려 업무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제시하는 등 사례 위주로 실시하여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NEIS시스템 실시간 접속으로 현장에서 학교의 방과후학교 업무에 관한 사항을점검하여 기존 누락 및 미기입 정보의 수정 기입이 이루어져 연수에 참석한 한 교사는 "방과후학교 업무를 담당하면서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고 현장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컨설팅도 가능하여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여수=김도현 기자

순천교육 발전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5개 기관 모여 순천형 교육의 필요성 공감대 형성

"지역교육력 높이는데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순천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8일 순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순천시, 순천대학교 총장, 순천제일대학교 총장, 청암대학교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교육 발전 종합대책 수립 순천형 지역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런 업무협약은 △지역 교육력 향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

지역 교육기관 간 연계 사업과 지역 교육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 연계 돌봄·방과후 교육활동 및 지역 대학·학교 연계 사업 활성화와 지원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앞으로 순천교육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을 위해 순천교육참여위원회의 토론회를 거치고 순천교육지원청이 실시하는 교육환경 종합분석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관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순천형 지역교육 협력을 이루어 갈 예정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대한민국 교육도시 순천을 위해 지역의 대학과 교육지원청이 함께 교육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 뜻 깊게 생각하고, 순천의 학생들이 미래 순천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교육력을 높이는 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길은 순천교육장은 "순천교육의 기본방향인 아이키움 최적, 함께하는 순천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순천시와 지역 대학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